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2월 12일 (제88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계약관계

누군가 나에게 이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그만하자고 말했다. 충분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에 평화통일이 올 때까지 나는 이 기도성회를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또 성인이 되어 국가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았을 때 나는 이미 대한민국과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 결혼이 무엇인가? 일종의 계약이다. 보통 각 배우자가 맡아야 할 재정조건과 그 이행해야 할 의무가 부부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 결혼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국가도 국민에게 당연한 의무가 있지만,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의무가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이 대한민국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의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의무를 다하고 기도하는 예수중심교회가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되었다. 결혼한 관계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당신을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했다. 계약이란 일종의 약속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해도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전제 후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한다. 그 전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부부계약을 파기하면 가정이 깨진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일이 초래될까. 스스로 생각하길 바란다.

남미지역이나 구(舊)소련 지역으로 선교를 다니다보면 영어는 아예 통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는 때가 있다. 통역관을 떠나 보내고 우리끼리 있을 때면 정말 귀머거리, 병어리가 따로 없다. 목사님은 그런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면 입버릇처럼 말씀하신다.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같이 외국말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의 바탕에는 목사님의 담대한 믿음이 있기

기도 하셨다. 러시아(Russia)에서는 숙소에 가스연기가 스며들어와 질식사할 뻔도 하였고, 멕시코(Mexico)에서는 무허가집회라며 집회를 이대로 강행하면 체포하겠다는 통보에 목사님은 정부허가를 얻기 위해 경비행기에 올라 8시간의 목숨을 건 비행을 하기도 하셨다. 물론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역사해주셨지만, 그런 일을 계속해서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달려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담력’이라고 말씀하신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

해 병원으로 실려 갔음에도 오늘 이 예배에 나와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담력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입술을 쓰시며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해주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교단이 기도하기에 결코 전쟁도 없고 망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대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겁먹은 개가 시끄러운 법입니다. 사자나 호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담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외선교를 하며 단 한 번도 사전 답사를 해본 적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달려갔을 뿐이다. 그곳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달려간 것이다. ‘믿음은 거룩한 모험’이라고 18번처럼 외치시는 목사님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담대함이 없다. 그러니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대역사도 일어났지만, 약한 마귀의 방해공작 또한 극심했다.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에서 KGB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시베리아(Siberia)에서는 한밤중에 높은 경찰찰과 시퍼런 눈을 한 조사관들이 숙소로 들어닥쳐 취조를 당하

해 하나님이 쓰는 자들의 공통점에 대해 설교하셨다.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옵니다. 항상 담대하란 말씀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달랑 물뿔통 3개 들고 섰던 다윗이나 가나안을 밭으로 여기고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사자 굴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도 마다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도 바울,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사자 밥이 되든, 십자가에 달리든, 화형에 처해지든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본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

랑이를 보세요. 의연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괜히 말 많고 시끄럽지요. 외유내강(外柔內剛)이라는 말처럼, 진정한 강자는 겉은 부드러운 법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며,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왕의 자녀는 겁나는 게 없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믿음은 담력을 먹고 자란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한은택 전도사
hena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13~16)

전도하는 재미로 살아보자

“2017년은 전도하는 재미로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갑니다. ‘죽기 살기도 해도 어려운 게 전도인데 전도하는 재미로 살아보자니요…’라는 표정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는지 알게 되면 전도하는 재미가 생길 테니 얼굴 푸세요. 성적이 자주 오르면 공부할 맛이 나서 애들이 자주 공부하게 되듯,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전도의 재미가 생기고 분명히 전도에 열을 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롬 1:14-15)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빛을 지었을까요? 아직 만난 적도, 얹힌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도적 직분에 대한 사명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악 중에서 부르시어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도로 택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라, 그는 늘 하나님께 빛진 마음이었습니다.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라 여겼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다 갚을 수 없는데 누구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으려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니 늘 빛진 자가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받은바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능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힘들니까? 사도 바울처럼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을 보십시오. 상상 이상입니다. 신약성경을 돌로 압축하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사람들은 그가 죽을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었고, 다시 일어나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향하여 선교여행을 계속합니다. 온몸이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을 텐데 일어나 다시 전도를 하러 떠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는 그의 말은 절대 공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치사
우리
가 하
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님
 의 자
 녀가 되
 었음을 보
 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
 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 된 자들은 마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성
 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곧 권세와 능력이
 왔으니 그것으로 나가 주님의 증인이 되
 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주신 궁극적
 인 목적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나가
 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서 영혼
 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은 영혼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
 신 목적 중 단연 으뜸도 영혼을 구원함에
 있고(막1:38),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신
 이유도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음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막3:14). 교회의 사명 역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패역한 이
 시대를 참고 계시는 줄 압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
 니다(로11:25). 아직 구원받을 백성은 세

상에 맞습니다. 그런데 나가 외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게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건지사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빛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정 나가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중대한 일에 앞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법,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용 사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 같이 다들 기도로 중무장하고 나갔다고 말

합니다. 그 이유가 타당
한 것이, “내 아버
지께서 오게
하여 주
지 아
니

하
시면
누구든
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
라”(요6:65)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
히 기도해야 합니다(골4:3). 또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의학자인 허준
이 명의가 될 수 있었던 근본 바탕이 있
었는데, 그것은 바로 환자를 불쌍히 여기
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에게서 의
술을 배우기 전에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기에 그가 당대 최고의 명의
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전
도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마
귀와의 영적 전쟁이므로 마귀와 악령과
귀신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
도해야 하며, 핍박과 환난 중에도 좌절하
지 않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렇게 조목조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즉시 나가야 합니다.
전도는 절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 4장에 있는 비유처럼 닢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어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에게 칭찬받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즉시 나가 일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쾅게나 대고 있으면 어두운 곳으로 내쫓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식장에 가셔도, 장례식장에서도, 목욕탕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논이나 밭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논두렁 밭두렁에도 촘촘히 콩을 심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집보다 많이 거두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많이 뿌리다보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안의 눈도 떠야 하지만 구령의 눈도 떠야 합니다. 건져야 할 영혼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애꾸눈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에 말을 듣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림절을 맞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 사후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이제 전도하는 재미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종심교회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항상 갈등이 생긴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가도 막상 옆 테이블에서 전해지는 얼큰한 짬뽕 냄새에 취하면 절로 회가 동한다. 치킨을 시킬 때도 갈등은 계속된다. ‘양념치킨을 먹을까, 아니면 그래도 후라이드가 낫겠지?’ 메뉴판을 앞에 두고 선택장애를 겪는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닌 것 같다. 이를 위해 요식업주들이 대동단결하여 위대한(?) 작품을 내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반반 메뉴다! ‘짬짜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섞어만두(고기&김치)에 육해공 피자까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그야말로 대박이다. 선택할 때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아서 좋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으니 이 어찌 즐겁지 않으리오!

그러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바로 영생의 문제다.

얼마 전,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성도님께서 주일 대근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주일을 지키려고 다른 분에게 대근을 요청하려면 적지 않은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그 성도님의 가정 형편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있어 주일성수는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다.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호흡해야 하나, 먹어야 하나, 마셔야 하나, 잠을 자야 하나?’ 이러한 문제로 선

택장애를 겪는 자는 하나도 없다. 선택(選擇)이 아닌 당위(當爲)의 문제인 까닭이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당위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끌어내리려 한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생의 문제마저도 ‘갈까 안 갈까, 할까 하지 말까’ 선택할 수 있다고 꼬드긴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며 눈을 가리고 더 편안하고 달콤한 길을 제시한다. 착각하지 말자. 영적인 일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속지 말자. 신앙생활에 중간 지대는 없다. 오직 한 길, 좁은 길 뿐이다.

‘성리대전’을 보면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無恥則無所不爲)’고 했다. 심판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어찌 부끄러움인들 있겠는가!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 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한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도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인 것이다.

생각 없이 물건을 들다 허리 나가고, 어설픔게 살바 끈을 잡으면 되치기 당하기 십상이다. 이참에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수24:15)’! 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환경 때문에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당당히 믿음을 선포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자!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믿음의 프런티어(Frontier)가 되라

이탈리아의 모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를 개척자로 볼 것인지 침략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견해는 분분하지만,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었는데, 반면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일은 그냥 배를 띄우고 서쪽으로 계속 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폄하했습니다. 그 때 콜럼버스는 자신이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답하고는, 대뜸 계란 하나를 테이블 위에 똑바로 세워보라고 제안합니다. 타원형으로 생긴 계란을 테이블에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내 포기하자, 콜럼버스는 계란의 한 쪽 부분을 톡 톡 쳐서 그 깨진 부분으로 테이블 위에 계란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따졌고,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할 때까지는 아무도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개척자, 즉 프런티어(Frontier)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이러한 정신을 가진 자들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프런티어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열 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결국 그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생면부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건너와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찬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 말할 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죽음과 위협이 두려워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의와 진리와 복음을 외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죄악을 밟 먹듯이 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절제와 인내로 믿음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런 믿음의 프런티어(Frontier)가 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

나는 중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매사에 열정이 없고 게을러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나 역시 무엇 하나 열정적으로 해본 것이 없는 것을 느낀다. 삶의 의욕도 없고 뜻도 없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느끼는 것은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시다는 것과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아버지께 힘이 되었으리었을 텐데... 라고 뒤늦은 후회가 있다.

목자는 군자불경어수이경어인(君子不鏡於水而鏡於人)이라고 하였다.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타인을 거울 삼는다는 말이다. 물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자신의 외모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스스로의 인격을 볼 수가 있다. 거울에

대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남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보라고 말씀하셨다(눅6:37, 마7:1~3).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남의 허물은 곧 나의 허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 군자라면 타인을 거울삼아야 하겠지만 타인이라는 거울에 얼마간의 흠이 있어 내 흠을 가려줄지 어떻게 아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완전 무결하고 흠 없는 영적 거울 앞에 스스로의 부끄럽고 죄 많은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떠올릴 수 있다면, 죄에 가려진 타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보일 것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에 내가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는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동안 어떤 일을 했나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인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나는 성격상 전도가 안 맞아... 전도는 구역 내 조장이나 주의 종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한정된 이에게만 주는 은사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준 예수님의 명령(행 1:8)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전도가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교성도 좋고 활발했지만 말로 하는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소심한 전도로 시작했는데, 저의 간증을 적은 짧은 손 편지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써서 버스나 지하철, 버스정류장에 두고 내렸습니다. 제발 한 명이라도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몇 시간 후에 다시 그곳에 가면 손 편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자신감이 붙은 저는 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편견과 직장상사의 핍박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제는 성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전도를 할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도 찾아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예수님이 저를 보고 한없이 웃고 계신 게 느껴지며 잠이 못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체크해보는 온도계이자 척도임을 기억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춤추는 예배자가 되리라



1988년 중학교 3학년, 갑작스레 닥친 아빠의 사업실패로 간신히 4식구만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혼돈스러운 그때에 옆방에 살던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하였다. 그 말을 기다렸단 듯이 바로 친구 따라서 서울에서 인천에 있는 한국예루살렘교회에 첫 출석을 했다. 총회장 목사님의 꿀 같은 설교,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평안함을 주었고, 그것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강했다. 그 이후로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은 영안이 열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보이더니 내 가슴으로 떨어져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받고 은사까지 임하는 영적인 체험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집인이었던 우리 가정은 그런 나를 이해 못했고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고등학생 때에는 주일저녁만 되면 교회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몇 시간동안의 구타를 당해 얼굴과 온몸이 성한데 없이 피멍이 들었고, 어느 날은 칼부림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

뜨거워져갔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때 맞고 고통 받는 내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생각하니 원망도 좌절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차례의 폭풍우가 지나가던 어느 날 밤, 무릎을 조아

려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춤을 출 때 제일 기쁘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감사하며 결심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춤을 추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리라.” 그날 이후로 찬양을 들을 때면 벌써 내 영혼은 춤을 추고 있었고 손끝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점점 내 온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전혀 무용을 배워본 적이 없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무용을 배우게 됐고 그 움직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루 2~3시간씩 학교 방과 후 무용실에서 독학하며 미치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 팀원들 중 무용과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용팀 팀장으로 세우셨고, 나에게 작품을 만들게 하였고, 외부에 강사로 나가 무용을 가

르치게도 하셨으며,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 작품을 올리게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그렇게 위십을 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청년부에 들어갔다. 청년부에서 처음엔 구역장, 조장, 교구장까지 차근 차근 계단 올라가듯 직분을 맡으며 그릇을 만들어가셨고, 22살 때 위십팀 팀장으로 세우시면서 본격적으로 위십을 시작하게 하셨다. 위십팀의 이름이 필요해서 기도하던 중 ‘영으로 춤추는 예배자’의 뜻을 담아 ‘홀리워십(Holy-Worship)’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고, 24세 때 예루살렘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청년부를 비롯해 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위십팀을 가르쳤다. 그때 가르쳤던 제자들 중 22년째 함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대다수는 10년 이상 함께 한 친구들이다. 묵묵히 한 길을 걸은 그들은 이제는 거의 애 엄마들이 되었지만 신랑까지 동원해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함께 돕고 있다. 새생명 축제, 성탄축제, 세계목회자영성세미나, 위십드라마, 평화통일 기도성회,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연도 능히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그런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으로 1체육관 입당예배를 통해 공연을 드린 후 이초석 목사님이 명령을 하셔서 매 주 위십으로 단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 28년을 준비시키셨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주의 능력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늘 무릎을 꿇고 두려움과 눈물로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매주 단에 설 때마다 팀원들에게 늘 강조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춤을 추는 춤추는 예배자이다.”, “오늘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보고서 주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보여 드리자.”고 말이다. 나는 오늘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본다.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함에도 믿고 맡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총회장 목사님, 실수와 미숙함이 많음에도 기도로 응원해주시는 성도님들, 물질을 아끼지 않고 격려와 후원을 통해 동역해주시는 이후경 장로님, 아름다운 의상을 만들어주셔서 매주 더 빛나게 해주시는 홀리워십 의상디자이너 최정희 권사님, 사랑하는 홀리워십(Holy-Worship) 가족들, 그리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주를 위해 함께 힘써주는 우리 가족. 이 소중한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요 지금도 지치지 않고 위십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리는 춤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금도 매일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시간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위십드라마(Worship-Drama)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김인에 전도사

:: 평신도 묵상노트 ::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주인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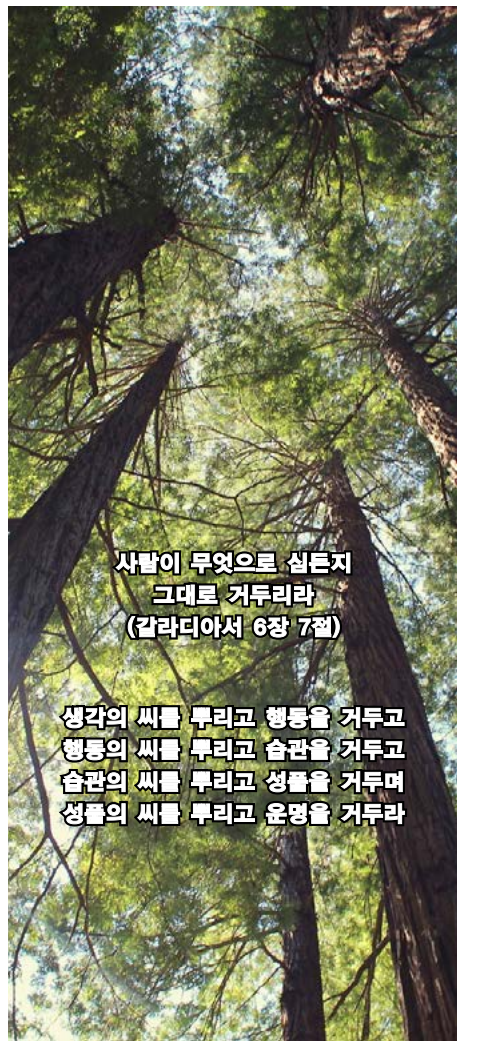
이집트 대왕의 최측근 보디발은 변방 히브리 출신의 노예 요셉이 자신 덕분에 호위호식하며 잘 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셔서 보디발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도록 하신 것이었다. 아람의 실세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히브리 출신의 오고 갈 데 없는 소녀에게 좋은 일자리를 줘, 안정된 삶을 살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소녀가 준 정보 덕분에 그의 평생의 숙제였고 극심한 고통이었던 문둥병을 고쳐 새 삶을 얻었다. 간호사인 나는 홀로 살고 계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경미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었기에, 내가 그분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간절히 나를 기다렸고, 열렬히 내 방문을 환영했다. 그 때는 내가 그분들의 삶에 크게 도움을 주

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십년이 넘는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 분들이 내게 해주신 것이 훨씬 많았다. 그분들에게서 70~80년 세월을 들으며 인생을 배웠고, 펼쳐림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이 늘 풍성했고, 나라에서 주는 월급까지도 받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 기준으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신다. 이것은 참으로 세상이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역설과 아이러니다. 작은 자가 하나님이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은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젊은이가 최고이며, 건강하고 똑똑한 강자만 지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린이, 노약자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들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푸대접을 하고 있다. 그런 교회에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지금은 교회보다 세상이 한 발짝 앞서 나

가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제시하며 시행하고 있으며,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약자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독교처럼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오용되기 쉬운 종교도 없다고 한다. 하기야 우리 마음이 강자 중심의 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경 어느 말씀인들 제대로 해석되고 악용되지 않을 수 있을까. 약자가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단순히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이 아닌, 약자 중심적인 삶의 양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약자를 하나님처럼 귀히 대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가장 좋은 자리를 배정해주는 틀이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복 받는다 고 한다.

박소향

bp650624@naver.com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생각의 씨를 뿌리고 행동을 거두고
행동의 씨를 뿌리고 습관을 거두고
습관의 씨를 뿌리고 성품을 거두며
성품의 씨를 뿌리고 운명을 거두라